

## 청소년단체 활동 경험이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재철<sup>1\*</sup>

<sup>1</sup>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 Influence of Youth Group Activities Experience to Sociality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Jae-Cheol Lee<sup>1\*</sup>

<sup>1</sup>Dept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단체 활동 경험이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Y시 소재 3개 중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1년 이상 경험한 140명을 실험집단으로, 경험이 전무한 140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고, 연간 8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 적용한 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성발달검사지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했고, SPSS 18.0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한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실험집단의 경우가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성 발달의 증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회성의 하위 변인(사교성, 자율성,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중에서 사교성, 자율성, 활동성, 지배성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둘째, 청소년단체 활동은 1년의 단기적인 활동으로 그치기보다 기간을 오래할수록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청소년단체 활동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원만한 사회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활동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향후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계획할 때, 청소년단체 활동을 이용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youth group activities experience to sociality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 To achieve above study purpose,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selected 280 from middle school second-grade students(youth group activities participants 140, non-participants 140). Experience based activities were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over 80 hours per year and the pre-post test was conducted using the sociality development inventory. The results of th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using the SPSS(ver 18.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 aspect of sociality development by youth group activities, the student participant showed somewhat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the non-participants. Second, considering the activity periods, the students with more than two-year experiences showed higher results than the ones with just one-year experiences. These results represent that various programs, which can develop the sociality, can be provided for youth when they join any group of activities in general and those programs are also very effective in developing the sociality of juveniles.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youth group activities are a necessary element at the school education fields, which can solve the various problems caused by overemphasizing only the knowledge transfer, reinforced education of humanism and reduced school violence.

**Key Words** : Youth group activities, Sociality development, School violence

---

\*Corresponding Author : Jae-Cheol Lee(Korea National Univ. Education)

Tel: +82-10-8354-2581 email: alltot@naver.com

Received September 25, 2013 Revised (1st October 16, 2013, 2nd November 11, 2013, 3rd December 4, 2013, 4th December 16, 2013

Accepted January 9, 2014

## 1. 서론

최근 몇 년간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문제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범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고 있다. 2013년에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이 입법추진 중에 있고, 표준화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들이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에 실제 교육현장에서도 학생안전지역 지정, 다양한 예방교육 실시, 학생 상담과 치료지원 강화 등이 일상분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들은 그간 면면히 이어져왔다. 2008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학교폭력 지표개발 연구[1]를 시작으로, 왕따와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한 '시우보우 프로그램' 등 4편의 동영상 통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2]가 있었다. 국외에서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처하기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Family & Schools Together, Peace Builder[3] 등이 개발·적용되었다. 선행연구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체험중심의 다양한 단체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범모(1971)는 사회성을 '사회활동과 집단활동을 즐기며, 친구가 많고, 협동적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충동이 적은 특성'이라고 하였고[4], 서승덕(2002)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점차 폭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이라고 하였다[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을 '사회활동과 집단생활을 통해, 친구가 많고 협동적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충동이 적은 특성으로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이나 국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포함[6,7,8]되는데, 그 중 학생들이 가장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청소년단체 활동[9]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시작된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명칭의 단체들이 독자적인 이념과 가치아래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합활동을 전개하였고, 1965년에 이르러 15개 청소년단체의 협의기구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발족하여, 범사회적인 청소년운동 체제를 마련하였다[10]. 2013년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의 수는 74개이며, 그 외 가입하지 않은 단체를 포함하면 총 100여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청소년단

체협의회 회원단체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10].

청소년단체 활동은 내용면에서 집회활동, 봉사활동, 야영수련, 체험활동, 레크레이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선·후배, 남녀노소, 지도자들과 사회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단체들의 공통적인 교육목적은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함양이라고 볼 수 있고, 공통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 야영활동, 문화활동, 국제교류활동, 오락활동 등을 공유하고 있다[11]. 이는 지식전달 위주로 편중된 학교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화로운 인간을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청소년단체 활동이 중학생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촉진하며, 동시에 가정과 학교 및 사회를 연계시켜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1-13]는 기존의 선행연구들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육현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 및 사회성교육 강화의 실질적인 방안으로도 그 실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단체 활동 경험이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지를 분석하여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 및 사회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그 가능성을 인식하는데 있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의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사회성 발달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활동기간에 따라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 Y시에 소재하는 3개 중학교 2학년 생 2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연맹에 소속된 중학생 대상 단체(초등 아람단, 중등 누리단, 고등 한별단)인 '누리단'에 가입하여 청소년단체 활동을 경험한 140명을 실험집단으로, 각종 청소년단체 경험이 전무한 140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 2.2 연구도구

#### 2.2.1 사회성 검사 도구

여러 선행연구들[12,13,15]을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의 구체적인 하위요인으로 사교성, 자율성, 활동성, 안정성, 지배성의 5가지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교성은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말하고, 자율성은 스스로 행위를 통제하며, 독립적, 자주적, 자발적이고, 인습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주체적인 특성을 말하고, 활동성은 일상생활에서 정력적이고, 생산적이며, 대인 적응성이 강한 경향을 보이며, 처음 만나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특성을 말하고, 안정성은 정서적 안정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서적으로 성숙되어 균형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말하고, 끝으로 지배성은 집단생활에서 때때로 자기주장을 내세우며, 지휘·감독하려는 지도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설문도구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범모[4]가 제작·표준화하고 사준환[5] 등이 적용한 사회성발달 측정 검사지를 중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중학교 2학년생이라는 점과 사회성 발달을 5개의 요소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기존 검사지의 내용들 중 해당 문항을 선별한 후, 내용타당도의 확보측면을 고려, 관련 분야 전문가(교육학분야 박사 2인)의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보완하였다. 측정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응답하는 Likert식 척도를 이용하여, 5개의 하위요인에 대해 각각 5문항씩 문은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구성과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questionnaire's composition & reliability

Division	Factors	Question's number	Inver-sion	Cronbach's α
Part I. personal variable	sex	1		
	school year	2		
	participation period	3		
	residential area	4		
Part II. sociality development	sociability	1,2,3,4,5	1	.832
	autonomy	6,7,8,9,10	9,10	.633
	activity	11,12,13,15,16		.657
	stability	14,17,18,21,22	17,18,21,22	.643
	sociality dominance	19,20,23,24,25		.687
	total	1~25		.839

### 2.2.2 청소년단체 활동 프로그램

청소년단체의 가입과 활동은 매년 3월에 있는 가입기간을 통해 한국청소년연맹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활동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누리단’에 정식으로 가입하여 연간 총 80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를 1년간의 활동으로, 학년을 거듭하여 총 160시간 이상 활동한 경우를 2년간의 활동으로 간주하였다. 80시간은 1년간 이루어지는 누리단 활동(총 100시간으로 구성)에 성실히 참여했다고 볼 수 있는 양적 시간기준으로 학교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80시간을 기준으로 수료증을 전달하며, 우수단원 표창이 이루어진다.

누리단의 활동은 한국청소년연맹의 청소년상(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율인, 자랑스러운 세계 속의 한국인)을 구현하는 8대 활동(과학정보·문화감성·나라사랑·사회봉사·교류·전통문화·자기계발·모험개척 활동)을 그 뿌리로 한다[17]. 구체적으로 과학정보 활동은 과학적인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를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갖추는 활동으로 정보화 교육프로그램과 사이버 상담실 운영 및 심포지엄, 홈페이지 경영대회 등을 들 수 있다. 문화감성 활동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감각으로 우리의 뿌리를 찾고 투철한 역사 의식과 민족적 긍지로 문화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활동으로 청소년 예술제, 향토문화 찾기, 건전가요 경연대회 등을 들 수 있다. 나라사랑 활동은 애국정신을 키우고 규칙적인 집단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식과 일체감을 갖는 활동으로 입단식과 친밀감 증진활동, 전적지 순례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봉사 활동은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활동으로 효행봉사, 불우이웃돕기, 각종 캠페인 등을 들 수 있다. 교류 활동은 청소년의 상호교류를 통해 사회에 진취적으로 적용하는 지도자의 자질을 함양하는 활동으로 친선문화교류, 청소년 어울마당 등을 들 수 있다. 전통문화 활동은 우리 문화의 바탕 위에 외래문화를 받아 들여 정통성을 지켜나가고 새 문화를 창조하는 활동으로 전통문화교실, 민속놀이, 예법교실, 풍물놀이교실 등을 들 수 있다. 자기계발 활동은 바람직한 품성을 바탕으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으로 간부수련회, 단장연수, 기능교실, 빙상교실, 심성계발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모험개척 활동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와 성취의욕을 높이는 활동으로 뒤편야영, 수상훈련, 탐사활동 등을 들 수 있다.

학교현장에서는 이러한 8대 활동들이 크게 연합활동과 학교자체활동으로 나뉘어 계획·실천된다. 연합활동은 다시 중앙연맹 차원의 전국단위 행사와 지역연맹 차원의 행사로 나뉘어지고, 학교자체활동은 연맹의 8대 활동을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실천한다. 수시로 지도자 연수와정이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다.

본 연구의 대상인 Y시 소재 3개 중학교는 학교별로 학교장과 지도교사가 참여하여 8대 활동을 바탕으로 연간 활동을 결정하고, 이를 지역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운영하였다. 부분적으로 학교장의 협조정도와 지도교사의 교육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소 달랐지만, 정기적인 협의회(연 4회)를 거쳐, 야영활동과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을 연합행사로 계획하여 운영하였기에 동일한 프로그램 적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활동내용들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Nuridan's program (2012)

Activity name	Date	Place	Note
1. Social service activity : Community service	year's regular events	Old people's home	
2. Exchange activity : Closeness development	2012.04.	Pre-selected School's campus	
3. Nation love activity : Swearing-in ceremony	2012.04.	School's ground	
4. Self-improvement activity : Leader training	2012.05.	Training Institute of Korea Youth Association	Summer vacation : camping (Deokyoosan campground)
5. Adventure-pioneer activity : Camping	2012.06.	School's ground	
6. Exchange activity : Outside training class	2012.07.	Nangido campground	
7. Adventure-pioneer activity : Water training	2012.06.~07.	Water training ground	
8. Exchange activity : Athletics competition	2012.07.	School's ground	Winter vacation : Ski camp (Youngpyeong ski resort)
9. Cultural sensibility activity : Art festival	2012.09.	The appointed place	
10. Traditional culture activity : Traditional culture class	2012.11.	Training Institute of Korea Youth Association	
11. Exchange activity : Farewell party	2013.02.	Pre-selected School's audiovisual room	

실험집단 2학년생 140명은 Table 2와 같이 연중 사회봉사 활동으로 지역사회 시설의 보육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매월 1회 방문하여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축구 등의 놀이를 함께 하였고,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말벗되기와 이불빨래 및 텃밭 가꾸기 등을 도왔다. 또한, 교류 활동으로 학교 간 소개와 장기자랑을 통한 친밀감 형성훈련을 하였고, 5개 종목(축구, 피구, 농구, 줄다리기, 장애물 이 어달리기)에 대한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졸업단원 축하파티를 공동으로 열었다. 자기계발 활동으로 중앙연맹

에서 실시하는 리더십 훈련연수 참가하였고, 모험개척 활동으로 지정학교의 운동장에서 실시하는 캠프 및 레크레이션 활동참여와 덕유산 캠프장에서 열린 전국연합캠프에 참가하였으며, 겨울철 용평스키장에서 열린 스키캠프에 참가하였다. 문화감성 활동으로 독후감, 시화, 휘호 등에 대해 1인 1작품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예술제에 연구 대상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였다. 또한, 전통문화 활동으로 민속놀이 공연관람과 한지공예와 연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전통문화교실에 참여하였다.

이상의 활동들은 누리단의 8대 활동에 근거하여,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도 우수 프로그램들로 소개[10]하고 있는 프로그램들로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참고할 수 있다.

### 2.3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2012년 3월 14일과 12월 19일에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최종적인 자료분석은 개인사정(전학 및 결석 등)으로 설문에 참여하지 못한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실험집단 138부와 통제집단 136부의 총 274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빈도분석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청소년단체 활동 경험 전·후 및 실험집단 내 참여기간에 따른 사회성 발달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ver. 18)를 이용한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사전 검사 실시

본 연구의 실시 전, 두 집단 간의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2012년 3월 14일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pre-test result of sociality development

Division	Experimental group (N=140)		Controlled group (N=140)		t	p
	M	SD	M	SD		
Sociality development	78.86	13.00	79.04	14.22	-1.025	.118

Table 3에서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회성 발달의 정도는 p < .05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다.

### 4.2 연구대상의 성별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

연구 문제의 검증에 앞서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를 Table 4와 같이 살펴보았다.

[Table 4] sociality development's difference according to sex (N=274 : boy=130, girl=144)

Factors	Sex		Son		Girl		t	p
	M	SD	M	SD	M	SD		
sociability	3.07	.722	3.18	.684	-1.292	.197		
autonomy	3.24	.510	3.26	.494	-.238	.812		
activity	2.60	.549	2.55	.533	-2.054*	.041		
stability	2.73	.693	2.86	.606	.643	.521		
sociality dominance	3.23	.616	3.32	.621	-1.198	.232		
sociality development	2.97	.618	3.03	.589	-1.290	.198		

\* p<.05

성별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는 활동성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여학생(M=3.03)의 경우가 남학생(M=2.9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집의 대상의 선정과 검사의 시기 및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분석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고, 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점수 차이가 미미하므로 성별에 따른 사회성 발달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

### 4.3 청소년단체 활동여부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

<연구 문제 1>의 검증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활동여부에 따른 두 집단 간 사회성 발달의 차이를 Table 5와 같이 살펴보았다.

[Table 5] sociality development's difference (youth group activities participant or not)

(N=274 : act=138, non-act=136)

Factors	Activity or not		participant		non-participant		t	p
	M	SD	M	SD	M	SD		
sociability	3.40	.647	2.85	.649	-7.156***	.000		
autonomy	3.48	.446	3.16	.476	-7.028***	.000		
activity	3.06	.542	2.57	.449	-7.469***	.000		
stability	2.56	.661	2.59	.638	-1.613	.108		
sociality dominance	3.56	.556	2.98	.561	-9.149***	.000		
sociality development	3.21	.570	2.83	.555	-10.343***	.000		

\*\*\* p<.001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험집단(M=3.21)의 학생들이 통제집단(M=2.83)의 학생들에 비해 사회성 발달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경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안정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배경변인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각 가정마다 자녀의 수가 하나나 둘이고, 중학생이 되면서 학습량 과중으로 가족 간의 대화도 제한 되면서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줄어들었다고 보여 진다. 청소년단체 활동에서 경험하게 되는 야영활동이나 보육원 방문과 같은 협력과 봉사의 경험들은 실험집단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누리단 활동의 대부분이 생명과 안전, 봉사, 소통의 문제를 그룹별로 해결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 4.4 청소년단체 활동기간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

<연구 문제 2>의 검증을 위해 활동 참여생 138명을 대상으로 활동기간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를 Table 6과 같이 살펴보았다.

[Table 6] sociality development's difference according to youth group activities participant period

(N=138 : 1 year=68, 2 years=70)

Factors	Participation period		1 year		2 years or more		t	p
	M	SD	M	SD	M	SD		
sociability	3.25	.683	3.57	.577	-2.645**	.009		
autonomy	3.40	.434	3.48	.465	-.712	.478		
activity	2.89	.537	3.15	.528	-2.392*	.018		
stability	2.61	.759	2.65	.545	-.102	.919		
sociality dominance	3.47	.548	3.67	.554	-1.853	.066		
sociality development	3.03	.383	3.37	.353	-2.456*	.015		

\* p<.05, \*\* p<.01

전체적인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오래 지속한 학생들일수록 사회성 발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년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M=3.03)보다 2년 이상 활동한 학생들(M=3.37)이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고

성과 활동성의 측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학생들이 1년 동안 활동한 학생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면서 기존의 동료들과 더욱더 친숙해지고, 신입단원들과는 새롭게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간 연합활동이나 스키캠프 등은 매년 반복되는 활동들로 2년째 활동하는 학생들은 처음 접하는 동료 및 후배들을 격려하며 돕는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속에서 쌓게 되는 경험들이 사교성과 활동성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인성교육의 부재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청소년단체 활동 경험과 중학생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 및 확인, 사후검사의 순으로 진행하여,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리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단체 활동여부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전반적으로 사회성 발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안정성을 제외한 사교성, 자율성, 활동성, 지배성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체험활동이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 [5,13,15]과도 맥락을 함께하는 부분이다. 최근 들어 핵가족화가 가속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며 다양한 사회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음은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청소년단체 활동상의 야영활동이나 노인봉사 활동 등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학생들은 새로운 경험들과 접하며 스스로를 발견하고, 인간 상호간의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집단 활동을 경험하며, 같은 또래들의 문화적 형태 속에 자신을 동화시키고, 부분적인 조절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둘째,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한 기간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전체적으로 1년간 활동한 학생들보다 2년 이상 활동한 학생들이 사회성 발달의 정도가 높았다.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때, 사교성과 활동성의 측면에서 2년 이상 활동한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을 만나며, 인간관계의 폭을 넓힌 결과로 보여 진다. 또한 다른 하위영역에 있어서도 통계적으로 뚜렷하진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2년 이상 활동한 학생들의 점수가 다소 높았다. 따라서 청소년단체 활동은 다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회성 발달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이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장기적으로 형성된다는 기존의 연구[14,15,17]들과도 맥락을 함께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생들의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때, 효과적임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인성교육의 부재와 같은 각종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최근의 교육 현실에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H. J. Park, "A research of school violence indicator developmen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8.
- [2] G. J. Gwak, "A outcast of Korea and prevention programs", Korean Psychology Society, 14, 255-272, 2008.
- [3] D. C. Grossman, H. J. Neckerman, F. P. Rivara., "Effectiveness of a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among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0(20), 1605-1642, 1997.  
DOI: <http://dx.doi.org/10.1001/jama.277.20.1605>
- [4] B. M. Jung, "The gist of human nature examination method",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shing Dep, 1971.
- [5] S. D. Seo, "A adaptation camping activit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GS master's thesis, 2002.
- [6] J. M. Keller, "Motivational design of instruction". In C.M. Reigeluth (Ed.). Instructional design theories and models: An overview of their current status(pp. 386-434). Hillsdale, NJ: Erlbaum, 1983.
- [7] C. G. Kim, "A youth development psychology". Seoul Counseling & Resource center for Youth, Dep, 1986.
- [8] J. W. Ha, "A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ctivities and socialization", Ewha Womans University, GS master's thesis, 2003.

- [9] J. Y. Kang, "A activity guide for great leader", Korean Youth Association Publishing Dep, 2011.
- [10] 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 website; www.ncyok.or.kr
- [11] W. J. Kweon, "The reaserch in youth group activities", Korea Youth Institute, 1996.
- [12] G. W. Kim, "A communication type of youth group", Myongji University, GS master's thesis, 2001.
- [13] D. H. Choi, "A satisfaction of scaut members about camping activitie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GS master's thesis, 1996.
- [14] D. B. Kweon, "The five field of life long learning", Hakjisa, 2001.
- [15] J. H. Sa, "The reaserch on human nature development of youth to participated camping activities", Konkuk University, GS master's thesis, 2005.
- [16] R. H, "Virtual World : Culture and imagination", Steven Jones(ed), Cybersociety, Sage Publication, 1995.
- [17] G. D. Kim, "Youth's socialization", Youth Protection Association, 2008.

---

**이 재 철**(Jae-cheol Lee)

[정회원]



- 2006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석사)
- 2012년 8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교육학박사)
- 2010년 9월 ~ 현재 : 교육학 강사
- 2000년 9월 ~ 현재 :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관심분야>

학교교육과정, 학습모형, 효과적인 수업설계